

농진청, ‘인삼 총채벌레’ 반복 발생 관리 당부

고온기·장마기 이후에도 잎 변색·말림 등 증상 지속 살펴야
등록 약제 번갈아 사용하고 병든 잎·줄기 바로 제거해야

농촌진흥청이 인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총채벌레 피해가 재배 초기뿐만 아니라 후기까지 반복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총채벌레는 크기가 작아 초기 발견이 쉽지 않은 데다 세대 주기가 짧아 여러 세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방제가 늦어질 경우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해 재배 후기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총채벌레는 주로 인삼 잎의 즙을 빨아 먹어 피해를 준다. 이에 따라 잎이 변색되거나 말리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발 가장자리와 잎의 앞·뒷면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벌레가 즙을 빨아 먹은 흔적 등이 발견되면 발생 부위와 피해 범위를 신속하게 파악해 방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인삼 재배지 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경기 이천과 전북 고창, 전남 영광 등 일부 재배지

에서 총채벌레 피해가 확인됐다. 또 8월 고온기 현장 점검에서는 총채벌레와 함께 잣빛곰팡이병, 점무늬병, 탄저병 등 지상부 병해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온기와 장마기가 지난 이후에도 재배 후기까지 병해충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설명이다.

총채벌레를 방제할 때는 인삼

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고, 약제 저항성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제별 적용 대상과 사용 시기, 희석 배수, 사용 횟수, 수확 전 안전사용기준 등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해충 피해로 보이는 증상이

실제로는 고온이나 과도한 습기, 양분 불균형, 약제 피해 등 생리 장애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원인 진단도 필요하다.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의로 약제를 살포하기보다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은 뒤 적절한 방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배지 관리도 중요하다. 물이 고이거나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물길과 해가림 시설을 점검하고, 병든 잎과 줄기는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한다. 병이 발생한 재배지에서 사용한 농작업 도구나 신발 등에 묻은 흙이 다른 재배지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부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재배과장은 “총채벌레는 크기가 작고 재배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며 “고온기와 장마기가 지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재배 후기까지 꾸준히 밭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제 저항성을 고려한 적기 방제와 주요 병해충 관리를 함께 실시해 안정적인 인삼 생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인삼잎에 발생한 총채벌레

마늘·양파 1년 성패, 토양병해 선제 관리 필수

파종·정식 전 토양살균제 ‘균핵용사’와 ‘벨리스플러스’ 추천

본격적인 마늘 파종과 양파 정식 시기가 다가오면서, 월동 후 수확량과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토양 병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식 전 토양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늘과 양파 재배 시 가장 큰 걸림돌인 흑색썩음균핵병과 노균병은 토양 속에서 균핵 형태로 잠복해 있다가 월동 후 구근을 부패시켜 상품성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난방제 병해다.

특히 흑색썩음균핵병은 작물 뿌리를 통해 균사가 감염되기 때문에 지상부 경엽처리만으로는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균핵이 뿌리로 침투하기 전인 파종 및 정식 전 단계에서 토양 살균제를 처리해 토양 내

병원균 밀도를 미리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농고는 마늘 파종 및 양파 정식 전 처리해 흑색썩음균핵

병과 노균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토양 살균제 ‘균핵용사’와 ‘벨리스플러스’를 추천했다. 테부코나졸과 티플루자마이



▲경농제공

드의 합제인 ‘균핵용사 임제’는 흑색썩음균핵병 병원균의 세포막 합성 및 호흡을 신속히 저해하여 생장을 빠르게 억제하는 토양병해 전문 살균제다.

임제 한 알이 지니는 약효 활성 범위가 최대 4.5cm 수준으로 넓어 동일 약량을 살포하더라도 토양 내에서 한층 뛰어난 방제 효과를 나타낸다.

실험 배지 검정에서도 근접한 흑색썩음균핵병 균사의 생장을 100% 억제하는 우수한 방제력을 입증했다.

보스칼리드와 피라클로스트로빈이 조합된 ‘벨리스플러스 임제’는 예방 효과는 물론 초기 예방 및 치료 효과와 긴 약효 지속력을 자랑하는 침투이행성 토양 살균제다.

임제 제형으로 살포 작업이 편리하며, 마늘·양파 후작물에 대한 영향이나 약해 우려가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안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농협경제지주, 농축산물 수급 안정 점검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식품안전 특별점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 이사 김주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농축산물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현황과 가격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량을 평소 대비 최대 3.5배까지 확대하고, 농협 축산물 공판장의 도축 물량도 최대 1.2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소비기한 관리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식품안전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식품안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승일 산지도매본부장은 “명절 기간 주요 농축산물 수

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지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농협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종합 대응관리 시스템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과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농축산물 수급대책상황실 운영 (농협 제공)

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여성농업인의 성장과 농촌활력 위해 ‘맞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9월 8일(화) 포항시 산림조합에서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이진희, 이하 생활개선회)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촌활력 증진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진원 이석형 원장과 생활개선회 이진희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 41명이 참석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

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및 벤처창업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농업기술 및 농촌어메니티 자원 활용 지원, ▲농작업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활동으로는 농식품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 사업 연계, 치유농업 및 저탄소 농업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신제품 개발기술 영농지도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농진원의 전문

역량과 인프라,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보유한 생활개선회의 협력으로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농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기술사업화, 벤처창업, 종자보급, 스마트농업, 농기계 검인증, 농업자원 및 농생명분석 등 다양한 핵심사업을 전개하고 추진하고 있다.

김경숙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한농대,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2027학년도 신입생 570명을 선발한다.

수시 1차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된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한농대)는 오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농대는 18개 전공에서 수시 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 1차에서는 일반전형 231명, 농수산전형 124명, 사회통합전형 18명, 지역균형전형 59명 등 모두 432명을 뽑는다.

수시 2차는 일반전형으로 138명을 모집하며,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다.

신입생 선발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고교 내신 성적 70점과 출결 30점을 합산해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한 뒤,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자세한 전형별 지원 자격과 일정 등은 한농대 누리집에 게시된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사료

Dream Service

축산의 일상을 지키는 토탈솔루션

농협사료 드림파트너

컨설팅 / 시설지원 / 방역지원 / 수의진료

땀방울의 무게를 알기에, 당신의 고민이 멈추는 곳에서 농협사료의 걸음은 시작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부터 가장 나쁜 순간까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